

이동걸 회장 조건 수용한 쌍용車... 산은, 투자입장 밝힌다

〈산업은행〉

자구안 통해 협약연장·쟁의중단
산은, 조만간 기자회견 개최
새 인수자 없어 투자지연 전망도



쌍용차 평택 본사 정문.

쌍용자동차 노사가 단체협약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경영정상화 시까지 임금인상을 위한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자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제시한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을 모두 수용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자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쌍용차는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자구안을 확정했다. 자구안의 주요내용은 ▲기술직 50%, 사무직 30% 무급 휴업 2년 ▲현재 시행중인 임금삭감 및 복리후생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단체협약변경주기 2년→3년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생산대응 ▲무쟁의 확약 ▲유류자산 추가매각(4개소) 등이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년 단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흑자를 달성하기 전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쌍용차에)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사가 전제조건을 모두 수용하면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전제조건 수용여부와 별개로 산업은행의 자금지

원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은행 측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충족했지만 아직까지 자금을 지원할 필요조건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잠재적 인수후보인 HAA H오토모티브와 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 ▲자금조달 능력 확인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가 마련돼야 산업은행이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절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산업은행

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자금지원 여부와 관련해서 확실시 된 것이 없다”며 “다만 새로운 인수후보자가 투자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금투입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대출을 해줬다가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관련 임원 등이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 결국 전제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새로운 인수후보가 결정되고 이들의 자금조달능력과 사업계획성이 확인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쌍용차는 현재 EY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매각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쌍용차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은 이르면 이달 말 공고를 내고 7월 말까지 인수희망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4~5곳을 추린 뒤 8월 말까지 한달 간 실사 및 인수제안서를 접수하고 9월 말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늦어도 10월 말까지 가격협상을 통해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후보로는 HAA H오토모티브 외에도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박선전엔컴퍼니 등 3곳이 거론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금으로 3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했으며, 전기차 회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케이팝모터스와 사모펀드 계열사 박선전엔컴퍼니는 지난 4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쌍용차를 인수하면 육상의 모든 상용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하나 되는 홈쇼핑-편의점-슈퍼

합병 앞둔 GS리테일, 유통실적 기대감 ↑

각 사업 간 크로스 셀링·시너지 기대
코로나 백신도 호재... 실적반등 전망

GS리테일이 선보일 온·오프 통합 플랫폼에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 실적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는 데다 홈쇼핑과 합병을 통해 물류·디지털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송·바잉 파워 향상

GS리테일은 오는 7월 GS홈쇼핑과 합병을 앞두고 있다.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2025년 취급액 25조원을 목표로 하는 온·오프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IT·데이터·상품·물류 등 양사의 핵심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편의점 GS25와 GS수퍼마켓 등 전국 약 1만6000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센터 거점으로 활용해 소비자에게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

획이다.

GS리테일은 빠른 배송을 위해 최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약 508억원을 투자해 19.53% 지분을 확보했다. 이는 촘촘한 물류 배송망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인프라로 활용하면 타 이커머스 업체에는 없는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신선식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을 공동소상에 매입 규모를 확대하면 바잉 파워도 향상시킬 수 있다. 홈쇼핑과 편의점/슈퍼간 크로스 셀링도 기대할 수 있다.

◆야외 활동 증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편의점 실적도 개선될 조짐이다.

GS25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억원 증가한 4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도 선방한 셈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원가와 휴양지에 위치한

편의점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2학기부터 초중고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인수연 연구원은 “GS리테일은 오프라인 활동 정상화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백신 접종 시작에 따른 팬데믹 종식 기대감으로 오프라인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호텔업도 영업 기지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파르나스호텔도 백신 접종 본격화에 영업 기지개를 펼 것으로 점쳐진다.

파르나스호텔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5.7% 감소한 1660억원이다.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방역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비즈니스 수요와 호텔 연회 매출이 줄줄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호텔 방문객이 늘면 자연스럽게 영업 실적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기아 'xEV 트렌드 코리아 2021'

“첨단 전기차·혁신기술 직접 체험해보세요”

xEV 트렌드 코리아 2021

아이오닉5·EV6 등 전기차 전시·시승

국내 대표 전기자동차 전시회 'xEV 트렌드 코리아 2021'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EV 모빌리티, 충전기, 배터리 업체 등 총 50개사 참가, 아이오닉5와 EV6 등 최신 전기차 모델과 첨단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은 국내 EV의 문화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신차와 모빌리티, 신기술, 구매 정보 등 전기차의 모든 정보와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공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3종(EV6 스탠다드·EV6 GT-Line·EV6GT)을 비롯해 디엔에이모터스 주식회사, 에임스, 엠비아이 등 대한민국 전기차 시대를 이끌 전기 승용차·상용차·이륜차 등 다양한 EV 신차와 E-모빌리티가 공개된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전시하고 시승 체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초고속 충전 시스템 '이피트(E-pit)'와 수소전

기차 벙크 등을 선보인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로, 첨단기술과 혁신적인 실내 공간으로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 거리는 429km(통레인지 2WD 19인치 휠 기준)이며 350kW급 초급속 충전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10%→80%) 충전이 가능하다.

또 세계 최초로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800V 충전 시스템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는 물론 일반 400V 충전기도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적용해 야외활동이나 캠핑 장소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가전제품과 전자기기 등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 V2L은 최대 3.6kW의 소비전력을 제공한다.

기아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최초 전기차 EV6(스탠다드, GT-Line, GT) 실차를 선보인다. EV6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한다. EV6의 스탠다드, GT-라인 모델은 올해 출시 예정이며, 고성능 모델인 GT모델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된다. /양성운 기자 ysw@

“노사갈등에 매년 수만대 손실... 개선 시급”

» 1면 '후업체 발목잡는...'서 계속

실제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4년 단위로 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협이 만료되기 전 차기 단협을 마무리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임협으로 홍역을 치르는 한국기업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급속노조 규약 등이 있어 현

대차 노조 집행부가 단독으로 단협 기간을 연장하긴 힘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매년 임금 및 단협 협상을 진행하면서 노사 갈등으로 1년에 수만대의 생산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상견례를 갖고 있다. /현대차 제공.

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